

심층분석보고서

케이뱅크-자금세탁방지

2026.04.19

[1장] 산업 분석: 인터넷전문은행 3사 체제와 AML 규제 격변기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의 법적 정의와 시장 구조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2019년 제정)을 근거로 영업점 없이 전자금융 거래 방식으로 은행업을 수행하는 특수 은행입니다. 일반 은행법의 "동일인 은행 지분 4% 한도"를 완화해 산업 자본이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 핵심 제도 설계입니다. 이를 통해 KT(BC카드 경유 케이뱅크), 카카오(카카오뱅크), 비바리퍼블리카(토스뱅크)라는 플랫폼·ICT·핀테크 기업이 은행업에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17년 4월 케이뱅크가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영업을 개시했고, 같은 해 7월 카카오뱅크, 2021년 10월 토스뱅크가 차례로 출범했습니다. 2025년에는 금융당국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추진했으나 신청 컨소시엄의 자본 확충 계획과 차별화 전략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은 "3사 고착화 → 내부 경쟁 격화"라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AML 담당자 관점에서 보면, 3사가 차별화된 고객 세그먼트(케이뱅크의 가상자산 투자자 기반, 카뱅의 플랫폼 대중 기반, 토뱅의 슈퍼앱·외국인 기반)를 공략하면서 각기 다른 자금세탁 리스크 프로파일을 관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수신·고객수·순이익의 3사 격차

2025년 말 기준 총자산 규모는 카카오뱅크가 75조원대로 추정되며, 토스뱅크 32.5조원, 케이뱅크 31.86조원 순입니다. 수신은 카뱅 68.3조 > 토뱅 30.07조 > 케뱅 28.43조원이며, 여신은 카뱅 46.9조 > 케뱅 18.38조 > 토뱅 15.35조원입니다. 고객 수에서는 카뱅 2,670만명, 케뱅 1,553만명, 토뱅 1,423만명 순으로, 케이뱅크는 2025년 한 해 동안 약 278만명을 순증하며 토스뱅크와의 격차를 벌였습니다. 순이익에서는 카뱅이 2025년 4,803억원(+9.1%)으로 압도적 1위, 토스뱅크는 968억원으로 전년비 112% 증가해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 케이뱅크는 1,126억원(-12.1%)으로 상장 첫해에 오히려 역성장했습니다. NIM(순이자마진)에서도 토스뱅크 2.56%, 카뱅 2.0%대, 케이뱅크 1.40%로 수익성 구조가 엇갈립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플랫폼/슈퍼앱/가상자산)과 조달 구조(저원가성 예금 비중)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합니다.

규제 환경의 3대 변곡점: 특금법, 가상자산보호법, 업무규정 개정

첫 번째 변곡점은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전면 개정입니다. 이로써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고 실명계좌 발급 은행만 원화마켓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은 VASP의 AML 체계에 대한 실사 의무, 원화 입출금 모니터링 의무, 트래블룰 대응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담합니다. 두 번째 변곡점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예치금 이용료를 규제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연 0.1% 수준이던 예치금 이자비용이 2.1%대로 급등했고, 케이뱅크의 연간 이자비용 부담은 95억원대에서 1,000억원대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AML 관점에서도 예치금이 "수익원"에서 "비용 대상"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단순한 펌뱅킹 수수료 모델에서 더 정교한 리스크 관리로의 전환이 요구됐습니다.

세 번째 변곡점이자 가장 최근의 구조적 변화는 FIU의 업무규정 개정입니다. 2024년 11월 고시되어 2025년 5월 13일 시행된 개정 업무규정은 이사회 승인 의무 정책 범위를 확장하고, 대표이사의 AML 관리 책임을 명문화했으며, 보고책임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나아가 2027년 5월부터는 보고책임자가 AML 업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의 겸직 가능 범위도 축소했습니다. 이는 AML 조직이 단순 관리 부서에서 임원급 통제 조직으로 제도적으로 격상됐음을 의미하며, 은

심층 분석 보고서: 케이뱅크-자금세탁방지

행은 AML 전문 인력을 대규모로 확충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FATF 상호평가와 한국 AML의 국제 위상

한국은 2024년 10월 FATF 총회에서 강화된 후속점검(enhanced follow-up)에서 정규후속점검(regular follow-up)으로 최고등급을 상향받았습니다. 2020년 제4차 상호평가 당시 40개 권고사항 중 22개만 대부분 이행이었던 한국은, 4년 8개월간의 추가 이행 노력을 통해 32개로 이행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OECD 및 G20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 성과입니다. 단, 이 최고등급 획득은 방심의 이유가 아니라 더 강한 감시 대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제5차 FATF 상호평가 라운드는 2028년 3월 시작될 예정이며, 한국은 그 이전 시기에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5차 라운드는 기존의 "법·제도 존재 여부(technical compliance)" 평가에서 "실효성(effectiveness)" 중심으로 평가 초점이 이동하는데, 이는 은행이 "AML 정책 문서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자금세탁을 탐지·보고·예방하고 있는가"를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은행 AML 부서의 일일 업무 품질, STR 건수·질, 룰 튜닝 데이터, 모니터링 실효성 지표 등이 직접적인 평가 대상이 됩니다.

FIU 감독의 전면 강화와 여전·상호·PG 업권 확산

2026년 이후 FIU는 상호금융·전자금융업자·PG사에 대해 '엄정 제재' 방침을 공식 예고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은행 중심으로 적용되던 AML 감독이 전 금융업권으로 확산되는 전환점입니다. 더불어 따르면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상 2025년 AML 워크숍에서 CDD·STR·CTR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해 업계에 경각심을 촉구했으며, 미국 "세컨더리 생크션"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AML 실효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신한은행 미국 법인(신한아메리카)이 2024년 9월 NYDFS(뉴욕주 금융감독청)로부터 약 300억원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국내 우수 은행도 해외 AML 기준에는 미달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흐름은 AML 인력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가상자산 연계 AML의 제도적 특수성과 케이뱅크 함의

원화마켓 가상자산사업자(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은 네 층위의 AML 의무를 동시에 부담합니다. 첫째, VASP 자체의 AML 체계에 대한 적정성 실사입니다. 둘째, VASP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원화 입출금 흐름 모니터링입니다. 셋째,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특금법상 트래블룰에 따라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 정보(이름·지갑주소 등)를 수집·교환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넷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에 따른 한도계정 관리입니다. 은행연합회가 2024년 1월 시행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에 따르면, 실명계정 신규 개설 후 30일 경과 및 원화마켓에서 500만원 이상 매수 실적 확인 시 정상계정으로 전환하는 체계가 운영됩니다. 케이뱅크는 업비트 독점 제휴 구조상 이 의무를 가장 집중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은행이며, 결과적으로 업비트 AML 체계와 케이뱅크 AML 체계 간의 정책적 정렬이 상시 필요합니다.

컨설팅 펌이 보는 AML의 미래: AI 레그테크와 허위양성 혁명

McKinsey는 에이전틱 AI가 은행 금융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며, Deloitte·PwC 역시 머신러닝 기반 이상거래 탐지가 허위양성률을 30~50% 감소시키고 탐지율은 40% 이상 개선할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벤더 발표치이므로 해석에 주의). 국내에서는 하나은행이 머신러닝 기반 의심거래 등급 정량화 모델을, 신한은행은 통합 AML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고, 신한은행은 더벨로부터 "국내 최대·최고 AML 전문가 집단"으로 평가됐습니다. AI 레그테크는 규제 대응 효율과 과징금 리스크 절감의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AML 직무가 기존의 "규제 준수 보조" 영역에서 "데이터·기술 융합 전문" 영역으로 재정 의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케이뱅크는 테크 중심 은행 DNA와 KT 계열 데이터 인프라 활용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AI 기반 AML 고도화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케이뱅크-자금세탁방지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지원자는 "AML은 보수적 규제 부서"라는 통념을 적극적으로 뒤집어야 합니다. 업무규정 개정으로 임원급 책임 직무로 격상됐고, FIU·금감원 감독이 전 업권 확대, FATF 5차 라운드 준비, AI 레그테크 도입 가속이라는 네 가지 흐름이 동시에 겹쳐 AML은 가장 빠르게 진화하는 금융 전문 영역 중 하나가 됐습니다. 면접에서 "왜 AML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규제 준수가 중요하다"는 일반론으로 답하면 지원자의 차별성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대신 "AML이 지금 이 시점에 격상되는 구조적 이유"를 세 가지 변곡점으로 설명하고, 그 변곡점이 가상자산 연계 은행인 케이뱅크에서 가장 첨예하게 교차한다는 점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2장] 경쟁사 비교와 케이뱅크 포지셔닝

3사 재무 프로파일의 선명한 격차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재무 격차는 2025년 들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025년 연간 당기순이익 4,803억원으로 전년비 9.1% 증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총자산 75조원대, 수신 68.3조원, 여신 46.9조원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중 압도적 1위입니다. 비이자수익이 1조886억원에 달해 영업수익의 35% 이상을 차지하며, 저원가성 예금(모임통장·세이프박스 등) 비중이 60.8%로 조달 구조가 우수합니다. 모임통장은 이용자 1,250만명, 잔액 10.7조원의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토스뱅크는 2025년 96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같은 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8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습니다. 총자산 32.5조원, 수신 30.07조원, 여신 15.35조원 규모이며, NIM이 2.56%로 3사 중 가장 높습니다. 평생 무료 환전, 사장님 대출(누적 3.5조원), 외국인 특화 서비스 등 차별화 포인트가 수익성에 기여했습니다. 케이뱅크는 2025년 당기순이익 1,126억원으로 2년 연속 1천억원대를 유지했으나, 전년 대비 12.1% 감소하며 상장 첫해에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수익성 악화의 핵심 원인은 NIM이 2023년 2.35%에서 2025년 1.40%로 3년 연속 하락한 점이며,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업비트 예치금 이자비용 급증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세 갈래 분화

세 은행은 외형상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지만, 비즈니스 모델의 DNA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케이뱅크는 KT-BC카드 계열로, KT 통신데이터 기반 자체 신용평가모형(CSS)과 업비트 독점 실명계좌 제휴가 두 개의 핵심 차별화 축입니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35.0%로 3분기 연속 1위이며,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잔액도 700억에서 5,600억원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모임통장-세이프박스 체계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은행" 모델입니다. 대중 시장을 폭넓게 공략하며, 비이자수익 1조원 돌파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수익 구조의 다각화가 이뤄졌습니다. 토스뱅크는 토스 슈퍼앱(MAU 약 1,900만) 연계를 통한 "초기 고성장+외국인·시니어 특화" 모델입니다. 평생 무료 환전, 토스증권 연계 주식모으기, 외국인 근로자 맞춤 서비스 등이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광주은행과의 함께대출(누적 1.3조원)은 지방은행 시너지 모델의 성공 사례입니다. 이 같은 모델 분화는 AML 리스크 프로파일의 분화로 이어집니다. 케이뱅크는 가상자산 관련 고위험 고객 비중이 높고, 카카오뱅크는 플랫폼 유입 대중 고객의 방대한 규모에 따른 모니터링 효율성 문제가 핵심이며, 토스뱅크는 외국인·해외송금 비중이 높아 제재리스트 스크리닝 의존도가 큼니다.

케이뱅크의 독특한 포지셔닝: 업비트라는 양날의 검

케이뱅크 사업 구조에서 가장 독특한 요소는 업비트 독점 제휴입니다. 업비트 예치금은 2021년 말 5.99조원(당

심층 분석 보고서: 케이뱅크-자금세탁방지

시 수신의 52.9%)에서 2024년 9월 3.2조원(14.5%)으로 축소됐다가, 2025년 3분기에는 7.49조원(24.7%)까지 다시 확대됐습니다. 가상자산 시황에 따른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의미이며, 이는 수신 조달 구조의 안정성 관점에서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업비트 펌뱅킹 수수료 수익은 2023년 108억원에서 2024년 179억원으로 증가해 영업이익의 약 13.4%를 차지했고, 2025년 3분기 누적으로는 수수료수익의 32.6% 비중까지 커졌습니다. 이는 수익원 집중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뜻입니다. 제휴 계약은 초기 3~5년 단위에서 2024년부터 1년 단기 갱신으로 축소됐고, 2025년 10월 2026년 10월까지 1년 재연장되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리스크는 셋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금융당국이 "1거래소-1은행" 원칙을 폐지·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 하나은행·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이 업비트 영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업비트가 하나은행과 제휴 가능성이 열린 상황은 케이뱅크에 즉각적 자금 이동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둘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두나무 기업가치 15.1조원 산정)이 현실화되면 가상자산 산업의 지배구조가 재편되며, 케이뱅크와의 협력 구조에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큼니다. 셋째, 2024년 국정감사에서 "업비트 예치금 약 7조원이 한 번에 빠져나갈 경우의 뱅크런 리스크"가 지적돼 금융당국이 컨틴전시 플랜 제출을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AML 직무 관점에서 이 세 가지 리스크는 모두 "원화 입출금 이상거래 모니터링"의 민감도와 직결됩니다.

IPO 3수 끝에 상장, 그러나 공모가 하회

케이뱅크의 IPO 여정은 한국 금융사 역사상 가장 길고 험난한 사례로 기록될 만합니다. 2022년 6월 첫 예심 → 2023년 3월 시장 상황을 이유로 철회 → 2024년 6월 두 번째 예심 → 2025년 1월 공모 수요 부진으로 철회 → 2025년 말 세 번째 재도전 → 2026년 3월 5일 코스피 상장. 세 번째 시도는 공모가를 희망밴드(8,300~9,500원) 하단인 8,300원으로 낮추고, 공모 규모도 축소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3조3,673억원, 공모금 4,980억원으로 상장에 성공했으나, 상장 1개월 만인 2026년 4월 13일 주가 6,420원으로 공모가 대비 22.7% 하락한 상태입니다. 유사한 시기에 상장한 인베스트조선은 "IPO '완주'로 최우형 웃었지만 주가는 울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가 압박 요인은 복합적입니다. BC카드가 재무적 투자자(MBK파트너스, 베인캐피탈, 새마을금고)에 IRR 8% 미달 시 최대 1,100억원의 현금 보전 약속을 2025년 11월 7일 주주간 합의서 형태로 체결한 점, FI 지분 29.3%의 보호예수가 2026년 6~9월 순차 해제되는 오버행 이슈, 공모 직후 희망퇴직 단행 등이 주가 부진의 구조적 요인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 최초의 희망퇴직은 "확장 공식을 깨고 효율 경영으로 전환"하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경쟁사 AML 제재 비교와 글로벌 챌린저뱅크 교훈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3사에 대한 직접적 AML 제재 사례는 2023~2026년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는 3사의 AML 체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제도 도입 초기에 대형 위반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은 2022~2024년 고객확인 의무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와 개선사항 5건을 통보받았습니다. 개선사항은 외국인·법인 KYC 미흡, 고객위험평가 운영 미흡, 사기 이용계좌 연계 미흡, STR 운영 미흡, 독립감사 미흡으로, 이는 국내 은행 AML의 공통 취약점 목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은행 또한 2025년 AML 부서 경력 1년 미만 직원이 다수인 구조적 인력 부족으로 금감원 경영유의를 받았습니다. 신한은행 미국 법인(신한아메리카)이 2024년 9월 NYDFS로부터 약 300억원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글로벌 기준과 국내 기준의 격차를 상징합니다.

글로벌에서는 챌린저뱅크 제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Revolut는 2025년 4월 리투아니아 중앙은행으로부터 €350만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N26은 2024년 5월 €920만, Starling Bank는 2024년 9월 영국 FCA로부터 £2,900만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이 제재들의 공통된 지적은 "고성장 속도에 비해 AML 모니터링 시스템 투자가 지연됐다", "제재리스트 스크리닝이 불완전했다", "고위험 고객에 대한 EDD가 형식적이었다"였습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케이뱅크-자금세탁방지

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AML 실무자가 반드시 학습해야 할 사례들이며, 케이뱅크 면접 대비 시에도 "3사 중 가장 빠른 성장 구간에서 무엇을 놓치기 쉬운가"라는 질문에 Revolut-N26-Starling 사례를 인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케이뱅크 AML 지원자는 "업비트 의존 = 높은 STR 건수 + 트래블룰 + 고위험 고객 모니터링 + 한도계정 관리"의 4중 부담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카뱅·토뱅이 겪지 않는 이 구조가 케이뱅크 AML 직무의 실질적 핵심이며, 시중은행 출신 전환자라면 "제 과거 경력에서 유사한 고위험 거래 모니터링을 해본 경험"을 연결해 서술하는 것이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또한 글로벌 챌린저뱅크 제재 사례를 언급하면서 "고성장-저통제의 간극을 메우는 AML"의 관점을 제시하면, 지원자가 단순히 케이뱅크 내부만이 아니라 업계 전반의 구조를 꿰뚫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케이뱅크 AML의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이라 보는가"라고 묻는다면, "업비트 의존도 재상승과 1거래소-1은행 원칙 완화 시나리오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리스크"라고 답하는 것이 차별적입니다.

[3장] 케이뱅크 심층 분석: 재무·지배구조·전략·리스크

사업 구조와 수익 포트폴리오의 진화

케이뱅크의 수익원은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전통 여수신 부문입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이 주요 상품군이며,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700억에서 5,600억원으로 확대되고, 기업여신은 2023년 9,751억에서 2025년 2조3,107억원으로 2.4배 성장했습니다.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35.0%라는 포지셔닝은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목표인 "중·저신용자 포용 금융"과도 부합합니다. 둘째, 업비트 연계 수익입니다. 원화 입출금 처리에 따른 펌핑 수수료가 핵심이며, 업비트 이용 고객의 대기자금이 케이뱅크 수신에 머무르면서 저원가성 예금 역할을 일부 수행합니다. 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이자비용 부담이 커져 "수신 이익"의 질은 저하했습니다. 셋째, 플랫폼·제휴 수익입니다. 비이자이익은 2025년 1,133억원으로 전년비 40% 증가했으며, NH투자증권과의 주식모으기 제휴, 대출 비교 서비스, 광고 수익이 주요 항목입니다. 다만 이는 카카오뱅크 비이자이익 1조886억원의 약 10% 수준에 불과해, 플랫폼 수익에서는 여전히 후발주자 위치에 있습니다.

주주 구성과 지배구조의 다층 구조

케이뱅크 지배구조는 여러 층위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최대주주는 BC카드 33.72%이며, BC카드 지분 69.54%를 KT가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KT 손자회사 구조입니다. 2대주주는 우리은행(약 12~14%)으로 2017년 설립 당시부터 참여한 전통적 주주이며, NH투자증권이 10% 내외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MBK파트너스, 베인캐피탈이 각각 2,000억원 내외, MG새마을금고 1,500억원 등 재무적 투자자(FI) 컨소시엄이 2021년 1조2,00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대거 합류했습니다. 이들 FI에게 부여된 드래그얼롱(동반매각권) 조항이 2021년 이후 IPO 추진의 근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드래그얼롱은 IRR 8% 미달 시 FI가 BC카드 지분까지 강제 매각할 수 있는 권리로, FI의 투자 손실을 방지하는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2025년 11월 7일 주주간 합의서 개정을 통해 BC카드가 FI에 최대 1,100억원 한도 내 IRR 8% 현금 보전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재편됐습니다. 이사회는 2026년 3월 주총에서 사외이사 6인 중 신규 2인을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상장사 전환에 따라 공시 의무가 강화됐고, 주주총회 결의 요건도 달라졌습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케이뱅크-자금세탁방지

경영진 프로필과 전략 방향

최우형 대표이사(은행장)는 2024년 1월 취임해 2026년 3월 주총에서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하나은행 → 삼성SDS → 액센추어/IBM → BNK 금융지주 경력을 거친 IT-전략 융합형 CEO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테크 리딩 뱅크"라는 케이뱅크의 정체성과 일치합니다. 취임 이후 최 대표는 IPO 완주, 중·저신용자 비중 확대, AI·블록체인·디지털자산 3대 신사업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2026년 1월 그는 "2030년까지 자산 85조원, 고객 2,600만명, 금융플랫폼 구축"을 중장기 비전으로 천명했으며, 상장 조달자금의 상당 부분을 AI·블록체인·디지털자산 관련 신사업 투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확보, 디지털자산 수탁업(커스터디) 진출 검토, 블록체인 기반 예금증서 발행 등이 구체적 계획으로 거론됐습니다. AML 관점에서 이러한 전략은 기존의 업비트 연계 리스크에 더해 자체 디지털자산 사업 리스크까지 추가됨을 의미하며, AML 조직의 역할 확대를 예고합니다.

차별화 포인트: 업비트·KT·자체 CSS의 삼각편대

케이뱅크의 경쟁 우위는 세 가지 자원에서 파생됩니다. 첫째, 업비트 독점 제휴를 통한 저원가성 수신과 고객 유입 채널입니다. 업비트 고객 상당수가 원화 대기자금을 케이뱅크에 예치하면서 자연스러운 고객 유치 효과가 발생했고, 이는 초기 신규고객 순증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둘째, KT·BC카드 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신용평가모형(CSS)입니다. 통신료 납부 이력, BC카드 가맹점 결제 데이터 등 기존 은행이 확보하기 어려운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중·저신용자 식별 정확도를 높였고, 이는 중·저신용 대출 비중 35.0% 1위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대한·비대면 UX의 강점입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주담대 갈아타기 등 대한 상품에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보했고, 아파트담보대출 부문에서는 시중은행을 제치고 선도적 위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파워(MAU 2,000만 이상), 토스뱅크의 슈퍼앱 연계 효과(MAU 1,900만)에 비해서는 사용자 접점이 상대적으로 좁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4대 핵심 리스크 요인의 심층 분석

첫째 리스크는 가상자산 연계 리스크입니다. 업비트 예치금 24.7% 편중은 AML 관점에서 "한 곳이 무너지면 전사 리스크"라는 집중 리스크 구조를 의미합니다. 트래블러 미이행 사고, 업비트의 FIU 제재, 가상자산 시세 급락에 따른 예치금 이탈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동시에 케이뱅크 재무·평판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특히 FIU가 2025년 업비트에 대해 신규고객 3개월 영업정지 중징계를 포함한 제재 심의를 진행 중인 상황은 이 리스크의 현실성을 증명합니다. 둘째 리스크는 NIM 악화와 수익성 저하입니다. NIM이 2023년 2.35%에서 2025년 1.40%로 3년 연속 하락한 것은 구조적 문제이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예치금 이자비용 급증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ROE가 2024년 6.51%에서 2025년 5.26%로 하락했고, ROA는 0.36%로 3사 중 최저 수준입니다. 셋째 리스크는 IPO 후 주가 부진과 오버행입니다. 공모가 8,300원 대비 한 달 만에 22.7% 하락한 점은 시장이 케이뱅크의 성장 스토리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FI 지분 29.3%의 2026년 6~9월 보호예수 해제는 수급 불안 요인입니다. 넷째 리스크는 플랫폼 열위입니다. 비이자이익 절대 규모가 카카오뱅크의 약 10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은 수익 다각화의 구조적 약점이며, 상장 직후 인터넷전문은행 3사 최초로 희망퇴직을 단행한 것은 효율화 압박의 신호입니다.

재무 지표 추이와 건전성 관리

재무지표 관점에서 케이뱅크는 "규모 성장 대비 수익성 정체"라는 구조를 보입니다. 총자산은 2023년 21.42조원에서 2025년 31.86조원으로 약 49% 성장했고, 자산건전성 지표는 개선됐습니다. 연체율은 0.96%에서 0.60%로, NPL비율은 0.86%에서 0.57%로 낮아졌습니다. BIS 비율은 14.52%로 규제 하한(8%)을 상회하나,

심층 분석 보고서: 케이뱅크-자금세탁방지

토스뱅크(16.24%) 대비 열위입니다. 상장에 따른 자본 확충이 BIS 개선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여신 성장 속도가 빠른 만큼 자본비율 관리는 상시 과제로 남습니다. 고객수는 2025년 말 1,553만명으로 전년비 278만명 순증하며 토스뱅크와 격차를 벌렸습니다. 수신 중 요구불예금 비중은 저원가성 예금 경쟁력 지표인데, 업비트 대기자금의 변동성으로 인해 카카오뱅크의 60.8% 대비 열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지원자는 "케이뱅크의 사업 구조에서 AML이 비용 센터가 아니라 리스크 자본 센터"라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업비트 의존, IPO 후 주주 감시 강화, BIS 관리 부담, FI 보호예수 해제 등 모든 재무·구조적 압박이 AML 통제의 실효성과 연결됩니다. AML 조직이 의심거래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면 FIU 제재 → 업비트 제휴 유지 난항 → 예치금 이탈 → 수신 악화 → 자본비율 악화의 연쇄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AML 조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업비트 재계약에서 협상력 강화, IPO 후 평판 리스크 관리, FATF 5차 상호평가 대비 등 사업 전반의 방어선이 확보됩니다. 면접에서는 "상장은 은행 전환에 따른 공시·내부통제 강화가 AML 업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구조화해 답변할 수 있어야 하며, "AML 실효성이 케이뱅크 수익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전략적 사고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장] 인재상·조직 문화·AML 도메인 선호 인재 특성

케이뱅크 공식 인재상 키워드

케이뱅크가 공식 채용 커뮤니케이션과 임직원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3대 키워드는 "자기주도적 업무 권한", "책임이 전제된 자율", "수평적 문화"입니다. 조직 내에서는 직급 호칭을 없애고 모두 '님'으로 통일하며, 업무 복장은 자유, 연차 사용은 자율이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강조됩니다. 잡플래닛에 공개된 케이뱅크 임직원 공식 인터뷰에서는 "업무 진행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험과 노력의 결과,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한 경험이 곧 플러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신입·경력 모두에게 요구되는 핵심 서사 구조입니다. 실적 지상주의나 계급 중심 문화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일하고 성과로 증명하는" 문화를 표방합니다. 이는 AML 직무 지원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AML은 규제 준수라는 성격상 수동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케이뱅크는 "AML 업무 안에서도 자기주도적으로 개선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인재"를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과거 경험 중 "주어진 규칙 안에서 스스로 문제를 찾아 개선한 사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조직 문화의 이중성과 상장 이후 변화

잡플래닛 기준 케이뱅크 기업 만족도는 3.1/5 수준으로 중상위권에 속합니다. 장점으로는 연차·휴가 자유, 수평적 호칭, 사내 수면실·네일샵 등 복지 공간, 평균연봉 약 6,247~6,988만원 수준(잡플래닛 추정치)이 꼽힙니다. 우리은행 계열 복지를 일부 계승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신입 초봉의 절대 수준이 시중은행 대비 낮다는 점(급여 만족도 20/100), 인상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점, 조직문화 만족도 하락 추세(3.0→2.52), 무임승차 구조에 대한 불만, 일부 팀의 야근·주말 출근 등이 거론됩니다. 상장 직후 희망퇴직 단행은 이 변동성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요소입니다. AML 직무 지원자 관점에서는 이러한 양면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안정성보다 성장·주도성을 선호하는 인재"라는 포지셔닝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케이뱅크의 급변하는 상장 이후 환경에서 AML 조직을 함께 성장시키고 싶다"는 서사가 "안정적 은행 AML 부서에서 경력을 쌓고 싶다"는 서사보다 훨씬 설득력이 높습니다.

케이뱅크 자금세탁방지팀의 내부 문화

심층 분석 보고서: 케이뱅크-자금세탁방지

케이뱅크 공식 블로그에 공개된 자금세탁방지팀 인터뷰는 팀 구성이 "AML 기획 파트 + 모니터링 파트"로 세분화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획 파트는 정책 수립, 교육 기획, 시스템 기획, 당국 보고 대응 등을 담당하고, 모니터링 파트는 STR 작성, 의심거래 검토, 제재리스트 스크리닝, 업비트 원화 입출금 검토 등을 담당합니다. 팀 문화의 특징으로는 "파트 간 긴밀한 협업, R&R 빠른 분배, 목표 공유"가 언급됐고, 이상적 인재상으로는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력이 될 수 있는, 협업을 좋아하는 분"이 명시됐습니다. 이는 기술적 전문성이나 경력 년수 자체보다 협업 태도와 조직 기여 마인드가 1차 평가 기준이라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지원자는 자소서와 면접에서 "분석적 깊이"와 "협업 지향"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친 서사는 케이뱅크 AML팀의 선호와 어긋납니다.

AML 도메인이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인재 특성

AML 직무는 은행·보험·증권·가상자산·핀테크 등 업종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5대 역량을 요구합니다. 첫째, 규제 준수 마인드셋과 원칙주의입니다. STR 허위보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미보고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는 단순한 직무 윤리가 아니라 형사·행정 처벌 리스크를 내포하는 업무 특성입니다. 지원자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조직의 이익"이라는 관점을 체화해야 합니다. 둘째, 디테일 지향성입니다. FIU '우수 STR 평가위원회'는 충실도, 적시성, 신종 혐의유형 발굴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STR 보고서 품질이 개인 KPI와 직결됩니다. 사소한 숫자 오류나 논리적 비약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 특성입니다. 셋째, 분석적 사고입니다. 알럿 시스템이 생성하는 수많은 거래 중 실제 혐의가 있는 건을 선별하는 패턴 인지 능력, 가설 설정과 검증 능력이 필수입니다. 넷째, 다부서 협업 역량입니다. 영업점, IT, 법무, 리스크 관리, 감사, 경영진 등 폭넓은 내부 이해관계자와 상시 조율이 일상이며, 특히 영업 부서와의 긴장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데이터·언어 역량입니다. SQL·Python으로 룰 튜닝과 허위양성 저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OFAC SDN List·FATF 권고안·EU AMLD를 영어 원문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국제 제재 환경의 변화 속도가 빨라 영어 원문 문해력은 일일 업무 필수 역량에 가깝습니다.

자격증·학습 경로의 표준

국내 AML 인력의 사실상 표준 자격증은 CAMS(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로, 미국 ACAMS 협회가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입니다. 2023년 7월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내 CAMS 취득자는 2,669명이며, 은행직원이 74.7%(1,994명), 가상자산 업계가 6.6%를 차지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사실상 AML 직무 지원의 기본 스펙에 준하는 위상을 가지며, 신입 지원자는 CAMS를 취득하면 상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합니다. 다만 CAMS는 시험료가 높고(회원 기준 1,195달러, 비회원 1,595달러) 학습 기간이 3~6개월 소요되므로, 신입 지원자는 한국금융연수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을 먼저 취득하는 경로도 유효합니다. TPAC는 한국어로 치르며 비용 부담도 낮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금융연수원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 과정, 내부 통제관리사, 준법감시 자격이 병행 이수 가능 자격들입니다. 고급 경로로 CAMS-Audit(내부감사 특화), CAMS-FCI(금융범죄 조사 특화), CAMS-Risk Management(리스크 관리 특화)가 있으며, 이화여대-매일경제 AML 전문가 과정 등 대학·언론사 제휴 교육도 활용 가능합니다. 금융권 재직자라면 FIU·금감원이 인정하는 내부 교육 이수도 기본 요건입니다.

신입·타 업계 전환자를 위한 포지셔닝 전략

신입 지원자는 CAMS 또는 TPAC 취득 + SQL·Python 기초 학습 + 금융연수원 AML 교육 이수 조합으로 기본 체격을 맞춰야 합니다. 여기에 가상자산 관련 이해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블록체인 기초 지식, 가상자산 거래 메커니즘 이해, 트래블룰 해설 정리 등)를 포트폴리오로 준비하면 케이뱅크만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지원자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타 업계 전환자는 "전 직무에서 규칙 기반 판단을 해본 경험"을 AML 서사로 재구성

심층 분석 보고서: 케이뱅크-자금세탁방지

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세무 경력자는 "원칙 준수와 이상 징후 식별" 경험을, 준법 부서 경력자는 "규제 해석과 내부 전파" 경험을, PG사·VASP 모니터링 경력자는 "거래 이상 탐지" 경험을, 사이버 보안 경력자는 "이상 패턴 탐지 알고리즘" 경험을 AML 맥락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나 핀테크 경력자는 "VASP 내부 AML 경험"이 케이뱅크 업비트 계좌 모니터링 역량으로 직결됨을 반드시 강조해야 합니다. 이는 케이뱅크만의 사업 특수성과 가장 강하게 결합되는 경력 자산입니다.

면접 활용 포인트

"당신은 혼자 파고드는 분석가인가, 협업하는 조정자인가?"라는 질문이 케이뱅크 AML팀 면접에서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이는 팀 공식 인터뷰에서 강조한 "협업을 좋아하는 분"이라는 표현과 AML 도메인 공통 요구 역량인 "분석적 사고"의 균형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자소서와 면접에서 모두 "분석적 디테일 x 협업 지향"을 동시에 입증하는 에피소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패턴을 발견했으나, 그 해석과 조치를 정하기 위해 영업·IT·법무 부서와 함께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은 경험"과 같은 서사가 효과적입니다. 또한 팀 인터뷰가 공식적으로 강조한 "긍정적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자신의 언어로 녹여서 답변하면, 케이뱅크 AML팀의 공식 담론과 자연스럽게 호응하는 인재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독립적 분석과 협업적 실행을 동시에 하는 AML 실무자가 되고 싶습니다"와 같은 자기 정의가 이 팀이 원하는 답입니다.

[5장] AML 직무 분석: 실무 사이클·이해관계자·역량·가상자산 특수성

업무 사이클의 일·주·월·연 단위 루틴

AML 담당자의 하루는 전일 거래 모니터링으로 시작됩니다. TMS(Transaction Monitoring System)와 FDS(Fraud Detection System)가 밤사이 생성한 알럿을 일괄 리뷰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고위험 건부터 배분합니다. 신규 계좌 개설 건에 대한 KYC 검증, 기존 고객 중 프로파일이 변경된 건에 대한 재확인, OFAC·UN·EU 제재리스트에 대한 스크리닝 결과 리뷰도 일일 업무에 포함됩니다. 주 단위 업무로는 STR 초안 작성과 보고책임자 결재, FIU 송부(특금법상 의심 결정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가 법정 기한)가 핵심이며, 이를 예외 건 검토와 알럿 패턴 주간 리포팅이 병행됩니다. 월 단위로는 CTR(고액현금거래보고) 집계와 송부가 이뤄집니다. CTR은 1거래일 1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자동 생성되며, 당일 혹은 익영업일 내 FIU로 송부됩니다. RBA(위험기반 접근법) 갱신, 고위험 고객 모니터링 리포트, AML 시스템 성과 지표 리뷰도 월간 업무입니다. 연 단위로는 전사위험평가(EWRA, Enterprise-Wide Risk Assessment), 내부감사 수검, 금감원·FIU 검사 대응, AML 교육 기획과 이수율 점검, 이사회 보고자료 작성이 이뤄집니다. 이러한 업무 사이클은 기본 구조일 뿐이며, 특정 이슈(가상자산 시세 급변동, 제재 상황 변화, 법규 개정 등)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 체제로 전환됩니다.

KYC·CDD·EDD·STR·CTR의 실무 내용

KYC(Know Your Customer)는 고객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국내 특금법상 CDD(고객확인 의무)와 EDD(강화된 고객확인)로 세분됩니다. 기본 CDD는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실명번호, 국적,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며, 대리인 거래에서는 위임장과 대리권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우리는 행이 2024년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외국인·법인 KYC 미흡"과 "위임장 미확인"은 대표적인 CDD 위반 유형입니다. EDD는 고위험 고객(PEP, 즉 정치적 주요인물, VASP, 고액·복잡 거래 고객 등)에 대해 기본 CDD를 넘어선 심화 확인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거래 목적, 자금원(source of funds), 재산원(source of wealth), 실제 소유자의 실질적 지배 관계 등을 추가로 검증합니다. EDD는 단순 서류 확인이 아니라 공개자료(언론, 제재리스트, 부정적 미디어) 검색, 추가 증빙 요구, 전화 인터뷰 등을 포함하는 심층 조사의 성격을 띕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케이뱅크-자금세탁방지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의심거래보고)은 금액 무관으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작성하며,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은 1천만원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자동 생성됩니다. STR과 CTR의 본질적 차이는 "주관적 판단(STR) vs 객관적 기준(CTR)"이며,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AML 신입 면접의 단골 질문입니다. STR은 담당자의 "합리적 의심"이라는 판단 행위가 개입되기 때문에,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단 근거를 상세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반대로 CTR은 기준이 객관적이므로 건수가 훨씬 많고 자동화가 필수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하나의 거래가 CTR 대상이면서 동시에 STR 대상일 수 있고, 이 경우 두 보고서를 모두 작성·송부해야 합니다. FIU는 매년 우수 STR 보고자 시상을 통해 보고 품질을 장려하는데, 2025년 상반기 해외송금 핀테크 모인의 박종완 매니저가 선정된 사례는 신입·중급 모두에게 벤치마크가 됩니다.

내부·외부 이해관계자 지도

AML 담당자가 일상적으로 협업하는 내부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본부는 현장 KYC와 1차 모니터링의 접점이며, 지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비대면 영업 부서가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IT 부서는 AML 시스템 개발·운영, 룰 구현, 데이터 추출 인프라를 담당하며, AML 담당자와 상시 협업합니다. 리스크 관리 부서는 EWRA와 연계해 전사 리스크 뷰를 통합 관리합니다. 법무 부서는 제재 해석, 분쟁 대응, 규제 변화 분석을 담당합니다. 감사 부서는 AML 체계에 대한 독립감사를 수행하며, 경영진과 이사회는 최종 보고 라인입니다. 2024년 11월 업무규정 개정으로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이 명확화돼, AML 보고라인이 임원급까지 직결된다는 점은 반드시 인지해야 할 변화입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로는 FIU가 가장 핵심입니다. STR·CTR 보고 대상이자 감독기관이며, 업무규정 제정 주체입니다. 금감원은 검사와 제재 권한을 가지며, AML 체계 전반에 대한 정기검사·수시검사를 수행합니다. 한국은행은 외환 거래 관련 보고의 일부 수신 기관 역할을 하며, FATF는 국제 기준 제정 기관입니다. 타 금융기관과는 사기이용 계좌 정보공유 협의체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합니다. 가상자산 연계 은행의 경우 실명계좌 제휴 VASP도 핵심 외부 이해관계자이며, 케이뱅크의 경우 업비트와의 상시 협의 채널이 AML 업무의 중심이 됩니다.

기술·지식·자격증의 3축 역량

기술 역량의 첫째는 SQL입니다. 거래 데이터를 직접 추출·분석하는 능력은 AML 실무의 기본이며, 특히 케이뱅크 AML 시스템 개발자 채용공고는 JAVA, RDB, ETL, SQL 추출, AML·RBA·WLF 개발 역량을 명시합니다. Python과 R은 고급 분석과 머신러닝 기반 이상탐지에 활용됩니다. AML 솔루션 숙련도도 중요한데, 글로벌 표준 솔루션으로 NICE Actimize(SAM 트랜잭션 모니터링, ActOne 사례관리, WLF 제재필터링, X-Sight), Oracle FCCM(Financial Crime and Compliance Management), SAS AML, FICO TONBELLER, FircoSoft(제재리스트 필터링 특화), Verafin, Quantexa 등이 있습니다. 국내 은행 대부분은 자체 개발한 AML 시스템과 Actimize·SAS·Oracle 중 1~2개를 조합해 운영합니다.

지식 역량의 핵심은 특금법 전문과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FIU 고시), 자본시장법 자금세탁 관련 조항, FATF 40개 권고사항, 미국 Bank Secrecy Act, OFAC SDN List와 제재프로그램, UN 제재결의, EU AMLD(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5차·6차 개정, EU AMLR(AML Regulation), EU AMLA(AML Authority) 체계입니다. 이 중 OFAC은 미국 금융시스템과의 연계성 때문에 한국 은행도 상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며, 제재 위반 시 한국 은행이 직접 대상이 되지는 않더라도 "세컨더리 생크션"으로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더벨이 2025년 2월 "여전사 AML 허점 드러나 세컨더리 생크션 대비 시급"이라고 보도한 배경입니다.

자격증으로는 CAMS, TPAC, 내부통제관리사, 신용분석사가 기본이며, 소프트스킬로는 문서화 능력, 보고서 작

심층 분석 보고서: 케이뱅크-자금세탁방지

성 능력, 다부서 커뮤니케이션, 인내심이 반복 강조됩니다. 특히 문서화 능력은 STR 작성 품질과 직결되므로 AML 직무 채용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역량 중 하나입니다.

핵심 KPI와 평가 지표

AML 담당자의 KPI는 다음 7개 항목이 표준입니다. 첫째, STR 보고 품질로, FIU 우수 STR 선정 여부가 가시적 성과지표입니다. 둘째, 허위양성률(False Positive Rate) 감소로, 룰 튜닝과 ML 도입으로 운영 효율을 측정합니다. 셋째, 규제 위반 Zero로, 금감원·FIU 검사에서 무결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 이수율로, 업무규정상 필수 교육 이수를 100% 달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KYC·EDD 완결률과 적시성으로, 신규 계좌 KYC를 규정 시한 내 완료하는 비율을 측정합니다. 여섯째, 제재리스트 매칭 정확도와 처리시간(TAT)으로, 매칭 품질과 속도가 동시에 평가됩니다. 일곱째, STR 3영업일 보고 기한 준수율로, 법정 시한 초과 시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엄격히 관리됩니다.

가상자산 연계 은행 AML의 4대 특수성

케이뱅크 AML의 특수성은 다른 은행과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첫째, 업비트 원화 입출금 의심거래 검토가 명시적 핵심 업무입니다. 2023년 2월 케이뱅크 AML 모니터링 담당자 채용공고 원문에는 "가상자산거래소 원화 입출금 검토"가 업무 범위로 명시됐습니다. 일반 은행의 AML 모니터링과 질적으로 다른 영역이며, 가상자산 거래 패턴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둘째, 트래블룰 대응입니다. 특금법 트래블룰은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 정보(이름, 지갑주소 등)를 수집·교환하도록 규정하며,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정책을 조율해 이를 운영합니다. 트래블룰의 기술적 구현은 여전히 업계 과제이며, VASP 간 정보 교환 프로토콜(VERIFY, CODE, Sygna, Notabene 등)이 분산되어 상호운용성 이슈가 있습니다.

셋째, 한도계정 관리입니다. 은행연합회가 2024년 1월 시행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에 따르면, 최초 실명계정 개설 후 30일 경과 + 원화마켓에서 500만원 이상 매수 실적 확인 시 정상계정으로 전환하는 체계가 운영됩니다. 이는 "급조된 계정으로 대규모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며, AML 담당자는 이 한도계정 전환 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넷째, 대규모 입출금 모니터링입니다. 가상자산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입금과 매도 후 나가는 출금 패턴을 탐지해야 하며, FIU가 2023년 우수 STR 유형으로 꼽은 "복수 가상자산 중개법인 이용 자금세탁", "가상자산거래소 차명계정 자금세탁"은 실제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이들 4대 특수성은 케이뱅크 AML 담당자의 일상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케이뱅크 특유의 업무 난이도와 전문성을 규정합니다.

케이뱅크 AML 실제 채용공고 단서

케이뱅크 AML 직무 관련 채용공고는 최근 몇 년간 다양한 포지션으로 나왔습니다. 2023년 2월에는 모니터링 담당자(경력 1년 이상, 계약직)가 공고됐으며, 주요 업무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가상자산거래소 원화 입출금 검토였습니다. 2024년 2월과 4월에는 거래모니터링 기획·운영 담당자(경력 2년 이상, 정규직)가 공고돼 문서관리, 교육기획, 조사분석 업무를 맡았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AML 시스템 개발자(JAVA, RDB, ETL, SQL 추출, AML·RBA·WLF 개발 역량)가 공고됐습니다. 이처럼 포지션에 따라 필요 역량이 크게 다르므로, 지원자는 현재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포지션에 맞게 자소서·면접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는 "가상자산 업무 경험"이 우대 조건으로 명시되며, 이는 케이뱅크 사업 특수성과 직결됩니다.

면접 활용 포인트

"케이뱅크 AML의 가장 어려운 케이스 3가지를 꼽으라"는 질문에 대한 모범 답변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업비트 실명계좌 원화 입출금 이상거래 중 트래블룰 불완전 구간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글로벌 VASP 간 트래블

심층 분석 보고서: 케이뱅크-자금세탁방지

를 상호운용성이 미완성이므로, 해외 VASP를 경유한 거래의 송수신자 정보 확보가 까다롭습니다. 둘째,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자금 흐름의 실제소유자 판별입니다.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이 2년 만에 8배 성장하면서 신규 고객 중 차명·대리 실제소유자 이슈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IPO 후 기관·외국인 주주 거래에서 발생하는 PEP·제재리스트 매칭입니다. 상장사로서 외국인 주주 비율이 높아지면 PEP 관련 EDD 부담이 구조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세 가지를 케이뱅크의 재무·비즈니스 맥락과 연결해 답하면 지원자가 회사의 실제 구조와 AML 업무의 접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또 다른 예상 질문은 "허위양성을 개선 방안"이며, 이때는 룰 튜닝과 ML 기반 스코어링 결합, 고객 세그먼트별 임계값 차등화, 피드백 루프 기반 모델 재학습을 키워드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1. 금융위원회 - 한국 FATF 최고등급 획득 보도자료 — <https://www.fsc.go.kr/no010101/83270>
2. 금융위원회 - FATF 2024년 10월 총회 결과 — <https://fsc.go.kr/no010101/83268>
3. FIU(금융정보분석원)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2025.5.13 시행 보도자료 — <https://www.fsc.go.kr/po010106/84246>
4. 법무법인 김장 - FIU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 고시 해설 —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0687
5. 법무법인 율촌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겸직 분리) — <https://www.yulchon.com/ko/resources/publications/newsletter-view/38659/page.do>
6. Lexology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 해설 —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bdc49587-5765-4b47-8620-4521b03738d3>
7. 더벨 - AML 허점 드러난 여전사 '세컨더리 생크션' 대비 시급 — <https://m.thebell.co.kr/m/newsview.asp?svccode=&newskey=202502271500544920106014>
8. 더벨 - NH농협은행 AML 미국 본보기 제재 케이스 —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12301036546560109227>
9. 디지털데일리 - 우리은행 AML 업무 총체적 부실, 개선사항 5건 — <https://m.ddaily.co.kr/page/view/2024081217360880422>
10. 디지털데일리 - AI 레그테크로 과징금 리스크 대응 — <https://m.ddaily.co.kr/page/view/2024120318033740171>
11. 리걸타임즈 - 2025 금융규제 분야 리그테이블(AML·책무구조도) —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13>
12. 법무법인 세종 - FIU 가상자산사업자 위법·부당 사례 공

심층 분석 보고서: 케이뱅크-자금세탁방지

- 개 —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060>
13. FIU - 의심거래보고(STR) 제도 안내 — <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3.do>
14. FIU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 안내 — <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4.do>
15. Flagright - Revolut AML €350만 과태료 교훈 — <https://www.flagright.com/post/revoluts-aml-fine-what-every-fintech-should-learn-about-aml-risk>
16. AML Intelligence - Revolut UK 라이선스 보류(AML 우려) — <https://www.amlintelligence.com/2025/10/latest-revoluts-uk-banking-license-held-up-over-compliance-concerns/>
17. TheBanks.eu - Revolut-N26 등 EU 챌린저뱅크 AML 제재 — <https://thebanks.eu/articles/revolut-3-5m-aml-fine-and-similar-eu-penalties>
18. 딜사이트 - 케이뱅크 2025 연간 실적(상장 첫해 역성장) — <https://dealsite.co.kr/articles/159648>
19. 파이낸셜포스트 - 케이뱅크 2025 연간 결산 — <https://www.financial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719>
20. 스마트투데이 - 케이뱅크 IPO FI 1,100억 보전 구조 — <https://www.smarttoday.co.kr/ko-kr/articles/101098>
21. 인베스트조선 - 업비트 재계약 분수령 — https://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8/26/2025082680126.html
22. 인베스트조선 - 1거래소-1은행 원칙 완화 검토 — https://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1/28/2026012880198.html
23. 비즈한국 - 케이뱅크 업비트 수수료·예치금 비중 분석 —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31220>
24. EBN - 인터넷은행 3사 CEO 연임 동향 —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1486>
25. 아주경제 - 케이뱅크 업비트 의존도 심층 분석 — <https://www.ajunews.com/view/20250401074243429>
26. 뉴데일리 - 업비트 예치금 수신 비중 29.7%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15/2025041500224.html>
27. 슈퍼루키 - 케이뱅크 AML 모니터링 채용공고 원문 — <https://www.superookie.com/jobs/63e0a9468b129f69687f7bba>
28. 비즈니스피플 - 케이뱅크 AML 시스템 개발자 채용공고 — <https://www.bzpp.co.kr/biz/businessDetailView/BR251023A00238>
29. 캐치 - 케이뱅크 AML 거래모니터링 기획·운영 채

심층 분석 보고서: 케이뱅크-자금세탁방지

- 용 — <https://www.catch.co.kr/NCS/RecruitInfoDetails/398059>
30. 잡플래닛 - 케이뱅크 조직문화 공식 인터뷰
뷰 — <https://www.jobplanet.co.kr/companies/315807/feeds/1558>
31. 전자신문 - 금융가 CAMS 자격증 열풍(은행 74.7%) — <https://www.etnews.com/20230720000224>
32. 한국금융연수원 -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TPAC) — https://www.kbi.or.kr/platformWeb/Qual.do?cmd=openPage&pageName=qualInfo&p_iQlfn=28
33. ACAMS - CAMS 한국어 인증 페이지 — <https://www.acams.org/en/certifications/cams/korean-cams-certification>
34. 벤처스퀘어 - 모인, FIU 2025 상반기 STR 우수보고자 선정 — <https://www.venturesquare.net/1013632>
35. 헤럴드경제 -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FIU 준비 점검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70175>
36. 케이뱅크 공식 블로그 - 자금세탁방지팀 소개 인터뷰 — <https://blog.kbanknow.com/21>